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거마산생태환경연구소, 경기두레생협, 경기한두레협동조합,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공정무역카페 '마음을담다,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도시숲시민모임, 동부천IC반대주민대책위,
뜰안에 작은나무, 마을협동조합 소란, 모지리 협동조합, 바람가게, 보나벤투라OFS,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민예총, 부천민중연대, 부천상동감리교회,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종교인평화회의,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부천YMCA, 부천YWCA, 사랑의교회, 산제로협동조합, 산학교, 석왕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원불교 부천교당, 원불교 약대교당, 일터선교교회,
정의당 부천시갑위원회, 정의당 부천시병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을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정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모임, 제자교회, 지평교회(부천환경교육센터),
콩나물신문협동조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피스오브피스,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천시찰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해움작은도서관 (54개 단체)

차례

간담회 개요	3
프로그램 순서	3
부천시 환경정책 현황	4
부천시 환경 정책 이행률	4
부천시 환경 정책 이행 현황	5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정책 제안	33
탄소중립 선도하는 ‘부천’ 박다정<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33
도시숲, 걷고싶은 ‘부천’ 강희성<부천YMCA>	38
자원순환 선도하는 ‘부천’ - 원건형<소비자기후행동>	41
참고자료	45

I. 간담회 개요

부천시 환경정책 간담회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 부천을 위한 정책 이행 점검 및 민관 협력 방안"			
일 시	2023.07.13.(목) 14:00 - 15:30	장 소	부천시청 소통마당
주최, 주관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작성/총괄	김성재
목 적	1. 부천시장 1주년 정책 이행 점검 2.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 부천을 위한 제안 및 민관 협력		

II. 프로그램 순서

시 간		진행	내용
14:00~14:03	3'	사회자: 임행심 부천 YWCA	■ 내빈 소개 및 인사
14:03~14:08	5'		■ 부천시장 인사
14:08~14:10	2'		■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시작
14:10~15:10	20'	박다정 부천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 탄소중립 선도하는 '부천' : 정책 제안 내용 설명 ■ 질의 응답
	20'	강희성 부천 YMCA 활동가	■ 도시숲, 걷고 싶은 '부천' : 정책 제안 내용 설명 ■ 질의 응답
	20'	원건형 소비자 기후행동 캠페이너	■ 자원순환 선도하는 '부천' : 정책 제안 내용 설명 ■ 질의 응답
15:10~15:20	10'	사회자: 임행심 부천 YWCA	■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최종 발언 (이나경 사도요한)
			■ 부천시 최종 발언 (부천시장)
15:20~15:30	4'		■ 퍼포먼스 및 단체 사진 촬영

부천시 환경정책 현황 (2023년 1분기 기준)

10 환경도시 (8개)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

구분	공 약 사 항	추진부서	이행률 (%)
10-1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 태양광 시설 신설 및 확대	생활경제과	10
10-2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수립	미세먼지 대책과	25
10-3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 생태습지 연못 조성	환경과	3
10-4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대책과	15
10-5	1. 부천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	미세먼지 대책과	10
	2.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로수 관리	녹지과	20
10-6	자원순환 활동 지원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자원순환과	5
10-7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제도 마련		15
10-8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전환	도시농업과	5

부천비상행동 - 환경정책 제안

1. 탄소중립 선도하는 ‘부천’

정책제안

탄소중립 선도하는 ‘부천’이 되기 위한 첫걸음

- 탄소중립 선도하는 ‘부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로드맵일 것입니다. 탄소중립로드맵은 2030년까지 혹은 그 이후의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 1.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방법 도입
 - 개방적,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 모델 + 전문가 참여 포럼 추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목표, 탄소중립 정책 평가, 개선과제 발굴)
 - 계획수립과 더불어 이행점검 및 평가를 위해 지속운영 가능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추가 모집으로 당사자성과 다양성 확보
 - 현 탄녹위 위원은 16명으로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와 추가 모집을 통해 청년, 노동자 등 당사자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제안

우리도 하자. 부천시 RE100 비전 선포

1. 부천시 RE100 비전선포 및 세부계획 수립
2.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부지 태양광발전소 건립
3. 설치부터 세후관리까지, 주택태양광발전 지원사업 진행

■ 부천시 현황

부천시 에너지자립 계획보고서(2018)

	16년	30년
에너지자립도	21%	4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0.3%	20%

부천시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

- 제 4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추정된 부천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총 750천TOE(2015년 기준)이며 이중 태양에너지가 666.3천TOE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천시 건축물과 주택 동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건물과 주택을 활용한 최대 발전량을 추정하면 연간 466,191MWh으로 2016년 전력 사용량의 11% 수준으로 나타남.

부천시 전력자립도 현황

- (2016년 기준)부천시의 전력생산량은 197,026TOE로 그 중 열병합 발전소에서 196,307TOE가 생산되며,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의한 발전량은 719.4TOE로 추정됨.
- (2016년 기준)전력생산량 및 전력소비량을 고려하여 자립도를 산출한 결과 전력자립도는 20.56%로 산출됨. 이 중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소비하는 전력량을 대체하는 비율을 따로 산정하면 0.08%로 나타남.

부천시 건물 에너지 효율 현황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물 사용 연한에 따라 에너지 성능 및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1985~1987년 지어진 건물은 2015~2017년 건축된 건물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단독주택은 31%, 아파트는 43%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건물부문 소비되는 에너지가 국가 전체 사용량의 약 17%에 달함. 이 중 국내 건물 중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은 58.2%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건물부문에 가장 높은 감축률인 32.7%를 목표로 잡고 있어 정부로서도 노후 건물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잡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 정책방향

지난 4월 24일, 경기도 RE100비전 선포

-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 민선 8기 임기 내 원전 6기 규모인 9GW 신재생에너지 확충
- ▶ 공공기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공공기관 RE100,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

-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희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도 추진.
-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도 줄여나갈 계획.
- 도 소유 공공 건축물(134개소)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도 추진.
- 공공기관의 RE100 실천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

■ 정책제안

1. 우리도 하자. 부천시 RE100 비전 선포

- 부천시도 앞서 제시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발맞춰 RE100을 선언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환경도시 부천이라는 부천시의 슬로건처럼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RE100은 필수적입니다.

1-1. 부천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선언

-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2%→21.6%로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도의 의지에 힘입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1-2. 부천시 공공기관 RE100 선언!

- 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희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도사업과 연계하고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해야 합니다.
- 시 산하 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1-3. 대장 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도 RE100 실현 및 기업들의 RE100 적극 동참!

- 계획을 참고하여 부천시도 상공회의소, 부천 내 기업 등과 연계하고 부천시 내 산업단지를 RE100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첨단산업단지가 RE100이 가능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관,산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1-4. 민관협력으로 공공부지 태양광발전소 건립

-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하반기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에너지협동조합협의회(경기도 내 30여개 협동조합 참여)과 함께 공공기관 RE100 및 기업 RE100 연계를 위한 공공 유휴부지 타당성 현장조사를 통해 햇빛발전소 설치가능한 부천관내 유휴부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도유지, 시유지 중심으로 발굴한 유휴부지에 민관 및 부천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부천의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2. 에너지효율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진행!

- 에너지의 전환과 함께 이뤄져야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노후된 보일러나 창호교체, 오래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위한 진단과 지원, 취약계층 냉/난방시설 지원 등 공공재 성격의 에너지효율 진단 및 개선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그린리모델링은 창호교체, 단열보완 설비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입니다.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잡고 소비효율을 올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준다. 특히 동절기에는 44%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또한 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주택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은 가장 비용효과적이며 에너지빈곤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순사회편익이 크기 때문에 적극 장려할 필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주택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 진행

- 앞서 공공기관, 기업 및 산업 분야에서 RE100 목표와 함께 가정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반이 확충돼야 합니다. 부천시 에너지자립계획(2018)을 보면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2030년 발전량을 23,738(MWh/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RE100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공동주택에는 가구별로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옥상에는 공용전

기용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반 확충만큼 중요한 것이 홍보, 교육, 개선, 사후관리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부천시가 민간과 협력하여 홍보, 교육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 및 제도 개선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반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천시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 이후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 질의 사항

1. 부천시 탄소중립로드맵 수립 용역이 발주되면 약 10개월 간 진행하여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수립 과정에 시민 속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속의 과정에 있어 부천시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질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 탄소세 등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선도적으로 RE100을 선언하는 지자체, 기업 등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최근 공공기관 RE100에 힘을 쏟고 있고, 이에 광명시 역시 RE100 비전 선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천시의 RE100 비전 선포 계획이 있나요?

2. 걷고 싶은 도시 ‘부천’

정책제안

도시 숲, 걷고 싶은 도시 ‘부천’

1.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적극적 도시 숲 조성
2.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거리 수목 관리 체제 강화
3. 함께 걷는 부천, 보행자·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 부천시 현황

- 부천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확인된 2009년 기준의 녹지율은 **산림(13.6%)**, **논(7.6%)**, **발경작지(7.8%등)** 등 녹지율 10% 미만이 도시면적의 49.6%를 차지하는데 특히 원도심 및 공장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녹지면적이 협소하고 생활권 공원녹지가 빈약한 실정임.
- 2013년 환경부가 발표한 불투수율 현황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부천시가 61.7%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는데 현재에도 각종 녹지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녹지의 생태적·순환적 기반이 악화되고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2016)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평가지표」에서 부천시는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받으며 자연지역 비율 15.9%, 생태네트워크율 0.9%, 보호지역비율 0.0%, 투수면적비율 38.4%, 수목피복율 14.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부천시의 수단분담률은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행 25.9%, 자전거 2.2%에 불과한데 부천시는 자전거·보행자 친화도시와 도시숲과 함께하는 걷고 싶은 인도 구축을 목표로 자전거·보행 수단분담률 증가 목표를 설정해야 함.
- 부천시는 자전거문화도시로의 비전과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망관리를 위해 현재 391개노선에 105km를 자전거 도로로 확보중이고 향후 43개노선을 추가하여 총 170km의 관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방향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산림청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도시숲 확대 및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15㎡를 목표로 설정(부천 3㎡)하였고, 5대 핵심전략으로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의 질적가치 증진, 도시숲의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을 제시한 바 있음.
- 인공위성(Landsat ETM+) 영상자료를 통해 부천시 도시열섬의 공간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표면이 뜨거운 지역은 녹지가 부족한 원도심 밀집지역과 공장지역 일대이며, 차가운 지역은 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 잔존 산림과 대장동에 남아있는 논경작지로 분석되어 도시열섬 및 폭염 방지를 위해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의 양적인 확대와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해야 함.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서는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보행중심의 도시 환경 정비와 노상주차, 도로점용 등 보행 방해요소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처럼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추진하면서 부천시의 ‘걷고 싶은 도시’를 실현해야 함.

■ 정책제안

- 녹지면적이 부족한 부천시는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입면녹화를 추진하고,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산림과 근린공원을 생활권에서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가로녹지를 통한 연결이 필요하며, 아파트 단위에서도 수목 관리 개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친화적 접근방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거리 수목 관리 체제를 도시숲(탄소흡수원 고려) 차원으로 확장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가로수 강전지를 금지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숲의 생명과 지속성도 고려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부천시는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하여 바뀔심기와 메워심기, 가지치기, 민간위탁 등의 조항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로수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부천시의 면적은 파리의 절반정도인 53.4km로 도시면적이 자전거등을 이용하면 한 시간내로 이동이 가능한 면적이거나 자전거도로나 인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1.5m가 채 확보되지 않은채 만들어진 곳들도 있으며 차중심의 도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도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확보된 곳이 없어 보행자가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도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실제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의 사항

1. 지난, 6월 26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마루광장-부천로-심곡천을 이어 ‘걷고 싶은 거리’와 송내대로에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부천시가 걷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걷기 위해 특정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는 집 주변을 걸을 수 있고, 걷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숲이 중요하고 결국 거리의 가로수가 중요합니다.

이에 부천시 가로수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용익 시장님 정책 <10-5-2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로수 관리>를 보면, 추진실적에 2023년 1월~2월 ‘한전 특고압 전력선 근접 가로수 전지 협의’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의 목표를 보면 43개 노선 약 170km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약 105km인 상황인데, 자전거 도로의 확충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자원순환 선도하는 ‘부천’

정책제안

자원순환 선도하는 ‘부천’

1. 자원순환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종이팩, 멸균팩 분리배출 시스템 및 재활용 체계 마련
3.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금지
4.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시 비용지원

■ 부천시 현황

부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비전(부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조성과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그를 통해 다채로운 방면의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만족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계획의 비전을 “다채로운 자원순환도시 부천시”로 설정함.

부천시 생활계폐기물 1인당 원단위 발생량 추이(부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단위 : kg/일·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인당 원단위 발생량	0.83	0.85	0.81	0.58	0.69	0.66	0.67	0.88	1.00	0.83

- 부천시 1인당 생활계폐기물 전망값은 2020년 0.88kg/일·인, 2021년 0.92kg/일·인, 2022년 0.96kg/일·인

부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부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구분	실적		목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전망	209,291.0	272,691.5	308,279.0	249,988.5	265,150.2	274,909.2	286,916.3
감량후 발생목표	-	-	203,662.2	198,489.9	196,303.6	192,971.7	190,229.3
감축량	-	-	104,616.8	51,498.6	68,846.5	81,937.5	96,687.0

- 2018년 부천시 생활폐기물 감량 후 배출량은 203,662톤/년이며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재활용률, 순환이용률, 매립률, 최종처분률을 계산하고 그 값을 이용한 순환이용률 전환계수(0.88), 최종처분률 전환계수(2.312)를 적용하여 산정한 2022년 순환이용률 목표는 59.3%, 최종처분률 목표는 18.4%임.
- 2016년 기준 재활용률 : 61.1%, 매립률 : 13.7%

부천시 자원순환 실천목표(부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실천목표 설정을 위해 2018년 환경부에서 제안한 자원순환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함
- 그에 따라 추정발생량은 발생량 전망 예측값을 적용하고 감량목표량은 인구당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를 기초로 산정('16) 0.92kg/인·일 → ('22) 0.87kg/인·일 → ('27) 0.86kg/인·일

■ 정책방향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촉진되어야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자원의 확보가 가능함.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분리배출 대상품목 및 배출요령을 용이하게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시스템 정비와 분리수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 물 및 음료수, 풍선 등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촉진되어야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자원의 확보가 가능함.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분리배출 대상품목 및 배출요령을 용이하게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시스템 정비와 분리수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재활용제품이 원활히 소비되어야 분리수거, 재활용제품 제조 등 재활용 전 과정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확대,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확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확대,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촉진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자원순환기본법('18.1)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시책 수립·시행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주체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천운동 추진함.
- 경기도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배달·포장용기로 음식을 주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달음식 이용자 807명의 77%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시범사업 경기도 전역 확대 필요성에는 도민 전체 72%가 공감했다. 다회용기 시범사업이란 '배달특급'과 연계해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난 후

배달에 사용된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수거하고 위생적으로 세척해 다시 음식점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 정책제안

1. 자원순환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지역화폐와 연동(지역화폐 마일리지와 연계해 자원순환 활동이 높은 시민에게 추가 마일리지 제공)한 자원순환 마일리지 제도 도입(toss, 만보기 시스템 참고) 해야 합니다.
- 탄소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등, 마일리지 제도는 금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자발적이고 삶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다양한 마일리지 제도가 효과를 얻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 부문에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마일리지 제도와 연동하거나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2. 종이팩, 멸균팩 분리배출 시스템 및 재활용 체계 마련

- 분리배출하고 싶어도 전용 수거함이 없는 상황, 종이팩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수거함과 재활용 체계 마련' 필요합니다. 특히 부천관 내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해 아파트 밀집지역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점차 확산해야 합니다. [첨부 1]을 통하여 공문 예시 사진 첨부.
- 종이팩, 멸균팩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발생량이 플라스틱의 1/3로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는 종이팩, 게다가 고급 펄프로 구성돼 휴지와 페이퍼 타월 등으로 재활용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3. 공공기관 일회용품 제로 선언

- 부천시 공공청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약체결 및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선포
-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체계 구축 시행해야 합니다. 청사 내부 카페·외부인 응대·행사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생수병을 대여·세척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고 '23년에 외부에서 반입되는 1회용 컵, 배달음식 1회 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토록 해야 합니다. 청사 내부 카페·외부인 다회용 컵 대여·세척 대행은 자활사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1회용품에 대해서도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시 비용지원

- '다회용기 음식 배달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3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의 지역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다회

용기와 가방에 담겨 배달되며, 식사 후 그릇을 가방에 담아 집 앞 에 놓고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반납 신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 없음) • 서비스 이용자에겐 배달 할인, 상품권 지급 및 1천원 상당의 '탄소 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 제공됨.

■ 질의 사항

1. 정책 현황 <10-6 자원순환 활동 지원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23. 1. ~ 3. 마일리지 관련 내부 타당성 검토 및 자료수집을 진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공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부천시 정책현황 10-6>을 보면 2023년 1월 자원순환마을 평가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자원순환마을 평가 계획에 대한 내용과 현재 자원순환마을 현황,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출처

- 제 4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 부천시 에너지자립 계획 보고서(2018)
- 에너지공단, 에너지 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20)
- 국립환경과학원(2016)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평가지표」
- 산림청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 부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 자원순환기본법(‘18.1)
- 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 경기도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
- 참고 공문 ‘수원시 유용 생활폐자원(종이팩) 분리배출 협조 요청’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



수원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용 생활폐자원(종이팩) 분리배출 협조 요청

- 『1.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포장재로 고급 화장지나 냅킨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나, 종이팩과 종이류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3. 종이팩 배출시, 내부를 물로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별도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배출된 종이팩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 대상품목 : 안에 알루미늄 호일이 있는 종이팩도 가능

끝.』